

무주산골영화제 전체 상영작 공개

총 26개국 88편 상영... 개막작 '버터내고 존재하기' with 라이브 공연 선정

초여름, 영화와 함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제11회 무주산골영화제가 총 26개국 88편의 상영작과 함께 올해 영화제의 포문을 열 개막작을 공개하며 온라인 예매 오픈 일정을 확정했다.

오는 6월 2일부터 6월 6일까지 개최하는 제11회 무주산골영화제가 권철 감독의 <버터내고 존재하기>를 개막작으로 선정해 영화 팬들의 기대를 불러 일으킨다.

무주산골영화제는 지난 10년간 고전영화와 라이브 연주를 결합한 복합문화공연 형태의 영화를 여러 협력 파트너들과 함께 기획, 제작하여 개막작으로 선보였다.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제11회 무주산골영화제는 올해를 기점으로, 고전영화에서 한발 더 나아가 최신작에서부터 다큐멘터리까지 대상을 넓혀, 영화적 완성도와 재미 그리고 관객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가진 영화를 개성 있는 음악과 결합하여 무주산골영화제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개막작의 전통을 새롭게 만들 예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제11회 무주산골영화제를 여는 개막작은 권철 감독의 음악 다큐멘터리와 라이브 공연을 결합한 <버터내고 존재하기>(with 라이브 공연)이다.



개막작 <버터내고 존재하기> with 라이브 공연

<버터내고 존재하기>는 1933년 설립된 호남지역 최초의 극장으로, 1935년 개관 이후 지금까지 변함없이 운영되고 있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단관극장인 광주극장이 배경이다.

영화는 광주극장에 초대받은 일곱 팀의 실력과 인디뮤지션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음악을 따뜻하게 담아낸 음악 다큐멘터리로, 뮤지션들은 광주극장의 다양한 공간속에서 일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들을 존재하고 버터내게 하는 음악과 노래를 연주한다.

<버터내고 존재하기>는 뮤지션들의 이야기와 음악을 통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계속하며 살아가는 소박한 삶의 가치와 일상의 아름다움을 담담하면서도 따뜻하게 담아낸다.

오는 6월 2일, 제11회 무주산골영화제에서 처음 만날 개막작 <버터내고 존재하기>(with 라이브공연)에서는 영화에 출연한 뮤지션 '곽푸른하늘, 최고은, 주소영, 불나방스타쏘세지클럽'이 영화 안과 개막식 무대를 오가며 자신의 음악을 라이브로 들려준다.

영화와 음악, 스크린의 안과 밖, 과거와 현재, 꿈과 현실을 리드미컬하게 오가며 관객들에게 두 번 다시없는 감흥과 낭만적인 시간을 선사할 것이다.

한편 제11회 무주산골영화제의 티켓 예매는 오는 5월 12일부터 예매 가능하다. 무주산골영화제는 실내상영과 토크 프로그램, 무주등나무운동장 입장권을 유료로 선착순 판매하며 단, 6월 2일 개막일과 6월 6일 폐막일에는 무주등나무운동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제11회 무주산골영화제의 개막작을 비롯한 전체 상영작 및 프로그램의 상세한 정보는 무주산골영화제 공식 홈페이지와 공식 SNS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브랜드공연 '오만방자 전라감사 길들이기'

전주한벽문화관, 27일부터 10월 14일까지 매주 토요일 마당창극 공연

전주한벽문화관(관장 김철민)은 5월 27일부터 10월 14일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전통 혼례청에서 전주브랜드공연(마당창극) '오만방자 전라감사 길들이기' 공연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상설공연 '오만방자 전라감사 길들이기'는 '제주해비치아트페스티벌'에 선정됐다. '제주해비치아트페스티벌'은 전국 문화회관 관계자, 국내의 예술단체 및 기획사 등 문화 예술 산업 종사자 간 정보 제공, 교류, 유통과 다양한 형태의 공연 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전국 최대 규모 아트마켓형 페스티벌이다.

이에 따르면 '전주브랜드공연(마당창극)'은 전통 공연의 해학과 우리 소리의 예술성을 두루 갖춘 전주한벽문화관의 대표적인 상설 공연이다. 올해 열두 번째 무대인 '오만방자 전라감사 길들이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오만방자 전라감사 길들이기'는 전라감찰사, 전라감영, 전주 8경, 선자청을 소재로 활용해 전주의 이야기가 다채롭게 녹아있고, 전통예술을 기반으로 예술성, 대중성을 살려 현대적 색채를 결합한 창작 초연 창극이다.

티켓 가격은 전석 1만5,000원이며, 인터파크



와 티켓링크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한벽문화관 누리집(jlor.kr)이나 전화(063-280-7081)로 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도 거리극축제 노상놀이야 통합 퍼레이드 진행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대회 개최식에서 전라북도 거리극축제 노상놀이야 통합 퍼레이드(이하 통합 퍼레이드)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이번 통합 퍼레이드는 13일 오후 6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71개국, 25개 종목, 1만 4천여 명의 선수단 입장과 함께 진행된다.

특히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함남마을 문화생산자 협동조합(전주), △국악예술원 소리피(익산), △남원시협동조합 지리산권마실(남원), △고창농악보존회(고창), △포스댄스컴퍼니(부안) 등 5개 노상놀이야 수행단체(시·군)

총 200여 명이 참여한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코로나로 취소됐던 통합 퍼레이드가 전북에 의미 있는 행사로 다시 볼 수 있어 기쁘다"며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상놀이야 사업은 10월까지 전주시, 익산시, 남원시, 고창군, 부안군 등 5개 시·군에서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문화예술 기반의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www.jbct.or.kr)와 예술회관운영팀(063-230-7490, 7495)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라감영과 완영책판, 조선 출판의 다양성을 담다'

완판문화관, 상설전시 개막

완판문화관(관장 안준영)은 2023년 상설전시를 개관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라감영과 완영책판, 조선 출판의 다양성을 담다'라는 주제로 운영되는 이번 전시는 완판본 문화관 전시실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조선시대 각 지역의 관찰사가 상주하며 업무를 보던 관청을 감영이라고 한다. 조선 초기 전주에 설치된 전라감영은 1896년까

지 관찰사가 거주하며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도 관장하던 관청이었다.

또 전라감영에서 책을 간행하기 위해 관각한 목판을 완영책판, 출판된 서책을 완영본이라고 한다. 더불어 감영 내에 질 좋은 한지를 생산하던 지소, 책을 출판하는 공간이었던 인방도 위치했다고 전해진다.

전라감영에서는 국가의 주요 사상이나 통치 이념을 전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약 90여 종 간행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정처서 '속명익록', 유학서 '주지대전', 어학서 '삼운성취', 문학서 '우암선생언행록', 의학서 '동의보감' 등의 완영본 서책을 선보일 예정이다.

안준영 관장은 "전라감영에서 간행했던 완영본 서책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전주의 출판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전시를 마련했다"며 "웅성했던 기록문화를 재조명함으로써 출판문화 도시 '전주'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문화재단, '동문창작소' 입주 작가 9명 모집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은 오는 19일까지 '동문(東門)창작소'의 입주 작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원도심의 공실을 활용해 예술인의 창작 공간(작업실)을 조성하고 임대료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 방식으로, 기존의 레지던스

(residence) 사업과는 차별성을 가진 신규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전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예술인 중 미술분야에서 지속적인 작품 활동이 가능한 작가 총 9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9명의 작가는 약 2년간의 입주

기간 동안 작업 공간을 지원 받는다.

'동문(東門)창작소'는 전주시 원도심인 동문 거리에 위치한 삼양대방(동문길 94) 3층과 4층으로, 창작 공간 9실(12~13평)과 공용 공간(휴게 공간) 1실이 마련된다.

백옥선 대표이사는 "지역 교유의 원도심 문화의 확산과 작가의 창작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한국전통문화전당, 점심버스킹 '잠시 쉬어가도 괜찮아' 운영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점심버스킹 '잠시 쉬어가도 괜찮아' 공연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의 생활 예술인들을 위한 공연 공간제공, 그리고 지역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마련된 행사다.

버스킹 공연은 국악·악기·노래·미술·댄스 등 장르 불문으로, 전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 관련 개인 또는 단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날 전당에 따르면 신청서와 신청 시 제출한 공연 영상 등 서류·영상 심사를 거쳐 8개 팀

을 선발할 계획이며, 선정된 팀은 6월과 7월, 그리고 11월 3개월간 매월 금요일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1시간 동안 전당 야외마당 버스킹 소무대에서 공연을 펼치게 된다. 참여 팀에게는 소정의 공연료가 지급된다.

신청은 전당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김도영 원장은 "점심 버스킹으로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즐기고 향유 할 수 있는 힐링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에서 활동하는 재능과 열정을 갖춘 예술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